

부천시 5·18 33주년 기념展 계엄군 출신 사진작가 이상일 관장

15년간 망월동 찾아 5월 기록 “5·18 폼하...광주는 여전히 섬”

1980년 5월19일 작전 명령을 받은 스틸 다섯의 이상일(58)은 광주에 있었다. 계엄군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던 그의 임무는 불순분자 색출, 사복 차림으로 사진 채증을 하고, 시민들의 상황을 보고했다. 군대에서는 명령에 따르는 게 존재 이유였다. 그해 5월의 기억은 '내 기억'이라기 보다는 '명령에 의한 기억'이라고 여겼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친 그는 제대 후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 사진을 전공했다. 매년 5월이 되면 축적이 곤두섰다. 대학생이 돼 만난 5월의 실상은 오히려 참혹했다.

“나의 체험과 기억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경험이었다. 광주에 한번 가야겠다 생각했다. 그게 1985년이다. 대구에서 막차를 타고 광주에 도착하면 누가볼까 어두워질 때를 기다려 슬금 슬금 망월동으로 기어올랐다. 그곳에서 밤을 새고 새벽녘에 나와 첫차를 타고 대구로 돌아왔고, 그때 내 손엔 카메라가 있었다.”

5월 18일부터 부산 고은사진미술관에서는 이상일 관장 등 11명의 사진작가가 참여한 기획전 '5월 항쟁 33주년 기념전시회-그날의 출라송'(전시기획 송수정)이 열리고 있다. 광주도, 서울도 아닌 부산에서 대규모 전시회가 열릴 수 있었던 건 2년전, 33주년이 되는 해 꼭 '5월 광주전'을 열겠다는 이 관장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일 미술관에서 만난 이 관장은 “무엇보다 광주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했다.

“최근에 다시 불거진 역사왜곡 등 5·18 관련 문제들을 보면서 여전히 광주는 ‘섬’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시가 열리는 두달만 동안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광주가 어떤 곳인지 한번이라도 생각

했으면 싶다. ‘광주’에 심리적으로라도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관장은 이번 전시에서 ‘망월동’ 연작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2000년까지 해마다 망월동을 찾아 촬영한 사진들이다. 이 연작은 2011년 일본의 저명한

11명 참여 '망월동' 연작 등 7월까지 전시 “광주의 이름·상처 치유하는 계기 됐으면”



이상일 고은사진미술관장이 자신의 작품인 '망월동' 연작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상인 이나노부오상을 받았다. 1985년 망월동을 찾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다. 여기에 누워있는 누군가는 나를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로등도 없던 시절, 제단에 담배 한개비를 올려 놓고 나면 달빛에 반사된 영정 사진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가장 눈에 밝힌 건 '오월의 신부' 최미애의 영정사진이었다.

“모든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쓰일 지 몰랐을 거다. 저 사람들은 왜 여기에 누워있어야 하는 걸까. 카메라에 모든 영정 사진을 담기 시작했다. 찍은 필름을 암실에서 인화할 때 그 사람들 얼굴이 서서히 올라오면 견딜 수가 없었다. 자책

감, 참회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미안했다. 참회의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절실함이 있었다. 광주를 알리겠다는 소명 같은 거창한 것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망월동에 다녀오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감, 참회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미안했다. 참회의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절실함이 있었다. 광주를 알리겠다는 소명 같은 거창한 것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망월동에 다녀오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관장은 “지금도 5월이 되면 잘 못 먹고, 잘 못잔다”며 “2년 전 결혼한 아내에게도 5월이면 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라” 이야기 한 다고 했다.

노순택·오형근·강홍구·권순관·나경택·김은주씨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7월15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51-744-3924.

노순택·오형근·강홍구·권순관·나경택·김은주씨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7월15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51-744-3924. /부산=김미경기자 mekim@



고향·가족...그리움 담았어요 광주시 북구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여성 50여명이 자신들의 고향, 가족, 한국 생활 등을 그린 대형 그림 '아름다운 사람들'(가로 280cm X 세로 360cm)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각자가 직접 그린 목판 작품 170장을 이어 붙인 이 그림은 지난 3월 광주시 북구 양산동으로 이전한 북구다문화지원센터 입구 벽면을 장식하게 된다. ▶관련기사 1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노태우 단죄했던 검사·판사 합류 5·18 왜곡 범국민 변호인단 출범

전국 각지서 100여명 참여...민·형사상 대응 나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폼하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변호사로 구성된 100여 명 규모의 '범국민 변호인단'이 출범한다. 특히 5·18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를 기소하고 재판했던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가 광주시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합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3일 5·18 왜곡· 폼하에 대처하기 위해 광주시 지방변호사회, 민변 본부와 함께 '범국민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13명으로 법률지원단은 5·18 기념재단, 광주시, 유족,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5·18을 왜곡· 폼하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 방침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도 23명의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자

원하고 나섰으며, 서울의 민변 본부 공보 담당 변호사들도 범국민 변호인단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변호인단 규모는 1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폼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임성덕(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충상(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 방변호사회, 민변 본부와 함께 '범국민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왜곡· 폼하가 정부에 의해 방치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공감하고 변호인단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두 변호사

가 참여를 주저했으나 강운태 시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다.

문정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여과 없이 보도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종편채널이 잇따라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지역 국회의원, 5·18단체, 법조계, 시민단체, 지역 소재 대학 등 모두 334명으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 대책위'는 24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공무원·공공기관 대졸자 채용 지방대 할당 추진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대생으로 뽑는 채용할당·우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학 입학에서도 지역할당제가 추진된다.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 발표문에서 기정 '지방대학 육성법'에 담긴 주요 내용을 밝혔다. 그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가 언급됐다.

가령 공직 5급은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법안에 들어간다.

대학 입학에서도 지역할당제가 포함됐다. 모집단위별 지역인재 전형 선발의 근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외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전 등 학생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엔 의무적으로 할당 선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규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발표문에서 밝힌 지방대학 육성법 내용은 지방대학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지 정부 안은 아니다"라며 지방대 육성법은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방대 육성방안은 6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안규운 전남대 기획처장은 '재정지원·확충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이 필요하고, 자기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채용 유인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연남뉴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약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6월호
5월 25일 발매

키농샤
매이드인광주
브랜드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듭하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기획특집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다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키버스토리
매이드인광주
브랜드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듭하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기회특집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다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스페셜 인터뷰
영화감독으로 '인생 3막' 올린
영화인 김동호의 꿈과 삶

마주앉은 책과 삶
건축가 승효상
비움으로 가득 채운 사유의 건축

이달의 작가
소설가 공선옥
“삶이 문학과, 문학이 삶이다”

세계미술관 기행
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명품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MoMA

문화역사기행
부여 낙화암
무심히 흐르는 백마강에
꽃 지듯 흩날린 백제의 생명들

문화동행, 편편 클럽
광주전남별사랑
밤하늘 보면 행복해지는
이들의 '별' 이야기

행복한 컬렉터
해명전통다례교육원
장문자 원장이 수백 점의
다기에 담은 차사랑

리빙 & 스타일
당신의 이웃도어 스타일 믿을 만한가?
애호가·전문가의 네일아트 예찬 “빠져 나오기 힘든 매혹”